

'07. 9. 18(화)

채소류 태풍피해 속보

본 속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
지역모니터 요원의 조사결과와 전화 조사를
기초로 작성된 것임.

1. 피해상황 종합

	피해 이전 파종 · 정식 상황	파종 · 정식면적 중 태풍 피해면적 비율	
			이 중 유실피해
당 근	겨울당근 파종 대부분 완료	80~90%	제주시 20%, 서귀포시 10%
감 자	가을감자 파종 완료	50% 이상	30%
양배추	조생종: 정식 완료	40~50%	주로 침수피해
	중만생종: 50% 정도 정식	50%	주로 침수피해
쪽 파	60% 이상 파종	40%	10%
마늘 · 양파	제주지역: 일부 파종	10%	주로 침수피해
	전남지역: 조생종 위주 파종	고흥지역만 피해	주로 침수피해
무	월동무 30% 파종	대부분	주로 침수피해
배 추	월동배추 미정식	없음	-
대 파	겨울대파 정식 거의 완료	미미	-

II. 호우상황

태풍 ‘나리’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호우피해 발생

『 2007년 9월 14일 ~ 17일 누적 강수량

- 제주시 567mm, 한림 408mm, 애월 387mm, 구좌 324mm, 조천 545mm, 서귀포시 393mm, 성산 361mm, 표선 349mm, 안덕 262
- 전라남도 고흥 455mm, 순천 294mm, 진도 282mm, 해남 202mm

『 생육 중인 채소류 유실 또는 침수 피해 발생

III. 채소류 피해상황

당근

『 제주도 겨울당근 재배면적 중 80~90%가 유실 또는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음.

- 피해면적 중 유실된 면적은 제주시가 20% 내외, 서귀포시는 10% 정도로 집계
- 현재 물은 거의 다 빠진 상태이나, 향후 기형 당근 발생 등으로 상품성은 크게 저하될 전망이며, 거센 바람으로 당근 잎의 훼손이 심해 생육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
-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폐작면적은 시간이 지나야 파악이 가능할 듯
- 당근 폐작면적은 시기 상 재파종이 불가능하여 월동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.

감자

- 』 제주도 가을감자 재배면적의 50% 이상이 호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음.
- 유실이나 매몰된 면적은 피해면적의 30% 정도이며, 나머지 70%는 침수 피해 발생
- 유실이나 매몰된 면적은 향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, 확보된 종자량이 많지 않은데다 가을감자 파종 시기가 종료되어 재파종은 어려울 듯
- 침수 피해를 입은 포장에 파종된 감자는 발아 피해가 심각하여 향후 감자 생육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
- 감자 피해면적은 일정부분 월동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.

양배추

- 』 9월 5일 이전까지 정식되었던 조생종 양배추 재배면적의 40~50%가 침수 및 바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음.
- 피해면적 중 50% 내외는 복구가 가능하겠으나, 나머지는 시기상 재정식이 어려울 듯
- 재정식 불가능 조생종 양배추 피해면적은 브로콜리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.
- 』 중만생종 양배추는 현재 약 50% 정식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중 50%의 침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.
- 육묘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복구 이후 재정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, 작황은 크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



쪽파

- 』 태풍 피해 이전까지 쪽파 파종은 60% 이상 완료된 상황이었으나, 호우로 파종된 면적의 40% 정도가 침수 또는 유실된 것으로 조사되어 추석 대기 물량의 20~30%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- 피해면적 중 유실된 면적은 10% 정도이며, 침수된 면적도 향후 결주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
- 구쪽파 주 수확지역은 비가 계속 내려 땅이 마르지 않은 상태인데다 태풍 피해로 유실된 곳도 많고, 종구 확보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여 추가 파종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
- 잎쪽파 주 수확지역도 침수피해를 입었으나, 11월 초까지 파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상이 악화되지 않은 한 파종은 계속 이루어질 듯



마늘 · 양파

- 』 파종된 제주도 마늘 · 양파 재배면적의 10% 내외가 피해를 입었으나, 아직 본격적인 파종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인 피해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.
- 피해면적은 재파종이 가능하여 면적 변동에 큰 영향은 없을 듯
- 』 전남지역의 마늘 · 양파는 아직 파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태풍 피해는 거의 없으나, 8월 중순에 파종된 극조생 양파와 조생종 양파가 파종된 고흥지역은 호우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.
- 피해면적은 종자 확보 시 재파종 가능하나, 종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, 현재 기상도 좋지 않아 휴경할 가능성이 큼.



무

- 』 태풍 이전에 월동무 재배면적의 30% 정도가 파종된 상태였으며, 태풍 영향으로 대부분 피해를 입었음.

- 피해면적은 정지 작업 후 월동무로 재파종될 것으로 예상되며, 피해가 심한 일부는 쪽파나 마늘 등으로 작목 전환될 전망

배추

- 」 전남과 제주지역의 월동배추는 아직 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는 없는 상황이나, 타 작목 피해면적에 대체작목으로 배추가 재배될 수도 있어 예상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

대파

- 」 전남과 경남지역의 대파는 태풍 영향으로 일부 쓰러진 면적이 있으나,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.
- 그러나 작황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

IV. 호우피해 영향

감자 · 당근

- 」 금년 제주도 가을감자와 겨울당근은 당초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9월초 집중호우와 이번 태풍 영향으로 침수 또는 유실된 면적이 많아 재배면적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- 」 더욱이 침수된 면적의 감자나 당근은 복구 후에도 작황이 크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생산량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.

➡ 가을감자 · 겨울당근 출하기 가격 크게 상승할 듯

쪽파

- 」향후 잎쪽파가 재파종되어도 생육상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은 줄 것으로 보이며, 구쪽파 재배면적도 줄 가능성이 높음.

➡ 쪽파 가격 강세 지속되겠으며, 내년 쪽파 종구가격 상승 전망

양배추

- 」제주도 조생종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이번 태풍 피해로 면적이 더욱 줄 것으로 예상됨.

➡ 양배추 가격 금년까지 강세 전망

무

- 」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감자, 당근 유실면적에 월동무가 파종될 경우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.

➡ 금년과 같은 월동무 출하기 과잉생산 우려되므로 면적 확대 자제 요망